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대응 가동

전주시보건소, 9~12일 총괄상황반·비상근무조·역학조사반 운영 등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지역간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총괄상황반 운영과 재택치료 비상근무조 편성, 역학조사반 운영, 행정안전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는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총괄상황반 4개조(12명) △재택치료 비

상근무조 4개조(12명) △역학조사반 4개조(40명) △행정안전센터 4개조(15명)를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산선별진료소와 덕진임시선별진료소 두 곳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61개소와 코로나19 치료제 및 일반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협력약국 56개소도 지정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가 비대면 진료 및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인 △대자인병원 △전주기독병원 2개도 연휴 기간 중단 없이 가동되며, 전주시 행정안전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정보와 응급·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야간 시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재택치료자 위급상황 시 병상요청 등 응급환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올해 추

석 명절은 코로나19 발생 후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는 첫 명절”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반 환자와 호흡기환자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를 참고하거나 행정안전센터와 보건소 상황실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추석 연휴야간 체험 콘텐츠 '풍성'

전주시, 9-12일 경기전 광장서 관광 활성화 위한 이벤트 추진

전주시는 추석연휴 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색적인 야간관광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경기전 광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경기전 광장을 비롯한 전주한옥마을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야간 체험 콘텐츠 등 풍성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오후 시간대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을 시작으로 △전주에 관한 퀴즈 톨렛 톨리기 △관광객 접도시 전주 여행토퍼 인증샷 이벤트 등 관광객들에게 전주를 알리고 각종 선물을 지급하는 홍보 이벤트를 펼친다.

저녁 시간대에는 전주 SNS(비트전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주야간관광객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비트전주' 계정을 팔로우한 여행객에게 전동성당과 남천



교, 전라감영, 덕진공원 등 전주관광지를 아이콘으로 표현한 야광타투 스티커를 지급한다.

또한, 여행객들이 전용 태블릿에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과 그림을 작성하면 경기전 돌담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는 미디어 그래피티 드로잉 체험도 무료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향토방위·시민안전 보호 헌신 항상 감사”

우범기 전주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35사단 전주대대·항공대대 방문 군장병 위로 “군부대와 건강한 협력관계 지원 나설 것”

우범기 전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향토방위와 시민안전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을 위로했다.

우범기 시장은 7일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를 차례로 방문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향토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달 실시된 ‘2022 울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협력해준 군부대와 각종 재난상황 시 대민지원 등 지역의 어려운 고비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지역 향토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군부대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향토방위와 시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경 장병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군 부대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를 차례로 방문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향토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기간 세시풍속 체험 행사 즐겨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세시풍속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추석날 만날 수 있는 보름달과 관련된 풍습과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한 달, 달 무슨 달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원을 들어주는 달 모양의 무드등 만들기 △나만의 토끼탈 만들기 △토끼와 딱방아 포토존에서 토끼탈을 쓰고 사진찍기 등이다.

소원등 만들기와 토끼탈 만들기는 1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전주역사박물관 아랫마당에서는 추석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은 박물관 마당에서 경기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체험 한마당’을 운영한다.

체험 한마당은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추석 포토존 △한복사진 플라로이드 찍기 △가로세로 십자말풀이 등 5가지이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도전! 제기차기’ 대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만든다

전주시, 행안부 ‘2023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

전주 한벽교와 전북대 대학로지하차도, 어은터널,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등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국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00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 위험시설의 사고위험 정도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대상지는 한벽교와 회포대교, 안덕원지하차로, 대학로지하차로, 어은터널, 진북터널 등 노후화된 교량·터널, 배수지 및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금암도서관과 화산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민간 건축물 등 100곳이다.

시는 후보지를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부터 순차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상 시설물의 진동과 기울기, 균열 등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 센서를 통해 계속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사물대이선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물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붕괴와 같은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전주시 재난상황실의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전파와 대응 등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민선8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점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12·119과 공조해 사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전주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더불어 안전점검, 시설물관리, 시스템 운영 등 관련 부서간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실시하는 안전대진단 결과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203개소 병·의원·약국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총 203개소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음

제 15회 **정음 구절초 들꽃축제**

다정하게, 넘실넘실
꽃처럼 고운 너, 날 보러와요!

일 시 2022. 9. 29. ~ 10. 16.

장 소 구절초 지방정원(정음시 산내면 매죽리 571)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71~3)

프로그램 꽃밭음악회, 꽃길퍼레이드, 향기&치유 체험, 구절초 상품 판매 등